

통일 시대를 맞은 건설산업

글 홍성환 기자(아주경제)

한반도 정세가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이후 전격 추진된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되는가 싶더니 다시 논의가 재개되는 등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어지고 있다. 다행히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 미국 세 나라 정상 모두 북미 회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은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미 양측은 현재 회담 관련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지금 한반도는 역사적 변곡점 위에 서 있다. 화해와 평화의 시대로 들어설지 아니면 대립과 전쟁의 시대로 되돌아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많은 사람들의 바람대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통일에 대한 논의는 빨라질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실제 통일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해도 성급하게 통일을 추진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남북관계 개선은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통일 논의가 본격 시작되기 전 다양한 분야에서 먼저 남북 간 교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가운데 경제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빗장을 풀고 한국·미국과 대화를 시도하는 이유는 바로 경제다.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2015년 마이너스에서 2016년 사상 최고치인 3.9%로 크게 뛰었지만, 지난해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로 다시 마이너스로 꺾인 것으로 추정된다.



제재 국면이 이어지면서 북한의 경제 사정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른 생활고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불만도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이 이러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 홀로 경제를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국제사회에 유화적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 북한은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산업단지 개발 등에 대한 외국 자본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북미 회담에서 체제 보장을 약속받으면 앞으로 경제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북한의 개방은 우리 경제에 있어 큰 기회다. 남북 관계 개

선 및 경제 협력 확대로 우리 기업들의 북한 진출이 늘어날 것이고, 이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성장 한계에 직면한 상태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더 이상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 확대는 성장세가 둔화된 우리 경제를 다시 뛰게 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 기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설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인프라 개선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즉 건설업계가 경제 협력에 앞장서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과거 독일을 사례를 보면 독일 정부는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의 경제 재건을 위해 인프라와 경제 개발에 이전지출의 18%를 사용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4년 발표한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역할 및 정책 과제'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인프라 개발 비용은 1400억 달러(약 150조원)에 달한다.

북한의 도로 사정은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민망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북한의 총 도로 길이는 2만6164km로 한국(10만5673km)에 비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고속도로 길이는 729km로 한국(4139km)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발전 시설도 부족하다. 2014년 기준 북한의 발전설비 용량은 725만kw로 한국(9322kw)의 7.8% 수준에 그친다. 특히 발전 설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력·수력발전소 모두 지어진 지 40~50년이 넘은 노후화된 시설들이다. 낡은 설비들이 제대로 유지·보수가 되지 않다 보니 발전량이 부족해 각종 산업에 필요한 설비의 가동률이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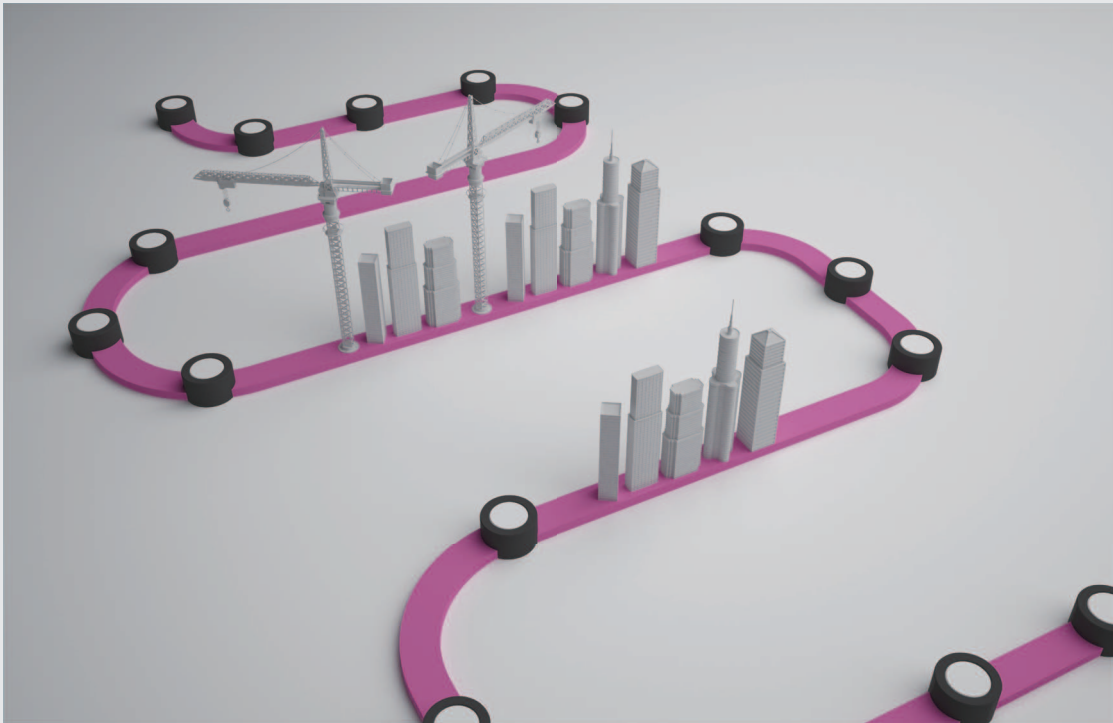
또한, 주택보급률은 60% 안팎에 불과하고 수세식 화장실 보급률도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택 공급이 원활치

않다 보니 집이 없는 가구는 부모 또는 기존 가구에 동거하거나 자조 주택을 건설하는 식으로 주거를 해결하는 실정이다.

인프라 및 주택 건설 이외에도 △개성공단 2·3단계 확대, 경제특구 등 산업단지 개발 △수자원 및 지하자원 개발 △문화·관광시설 개발 등도 이뤄져야 한다. 산업단지, 문화·관광시설, 지하자원 개발은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역할을 해 북한 주민들의 실질 소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북한과의 경제 협력 확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도 국내외 수주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일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에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발 빠르게 준비를 시작했다. 특히 국내 건설기업들은 지리적 접근성, 문화·역사적 동질성, 시공 효율성, 국가적 지원 등의 측면에서 다른 국가의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대우건설은 과거 대북사업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사업이 구체화되면 신속하게 움직이기 위해 북한 SOC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대북 경수로사업을 주도했던 현대건설 역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외에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기회를 엿보고 있다.

다만 북미 회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회담 이후에도 논의가 계속 필요하고 앞으로 국제 사회의 동의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선부른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 정세는 하루 앞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지금 당장 분위기가 좋다고 해도 내일 아침이면 상황이 급변하는 것이 대북 관계다. 북미 정상에 실제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까지 계속 힘겨루기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상황에 따라 테이블 자체가 완전히 엮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다시 문을 닫을 것이고 경제 협력은 시작도 되기 전에 없던 얘기로 끝나게 된다.

북미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 남북 및 북미 관계가 개선돼 경제 협력이 실현된다고 해도 안심하기 이르다. 사업이 시작된 뒤에도 한반도 정세에 따라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가까운 예로 개성공단을 보면 2000년대 초반 현대아산이 북한과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며 사업을 시작한 이후 4개 권역을 순차적으로

로 개발할 계획이었지만 이후 남북 관계가 급랭하면서 아직까지 1단계 사업에 머물러 있다. 특히 2010년 천안함 사태로 신규 투자가 금지됐고, 이후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으로 인해 2016년부터 문을 닫은 상태다.

재원 확보도 문제다. 북한의 낙후된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의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지출도 크게 확대돼야만 한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 우리 정부가 지원을 무작정 늘리는 것은 국민적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그렇다고 일반 기업이 리스크를 안고 정부 지원 없이 북한에 투자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북한의 경제 개방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 다만 장밋빛 전망만 갖고 경쟁적으로 달려들면 모두 손해만 보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과거 남북의 관계가 좋았을 때 대북 사업을 펼쳤던 국내 건설사들이 하나같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되새겨야 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민간 기업들이 돈 떼일 걱정 없이 북한에 진출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 그래야 민간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

통일 시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의 경제가 개선되면 실제 통일 단계에 이르렀을 때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건설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통일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KAPA]**